

어찌 음악을 빼놓고  
가을 산사를 말하랴

청량사 심곡사 보림사...어디로 갈까

가을을 맞은 산사에서 음악회는 빼놓을 수 없는 불교만이 가진 정취이자 낭만이다. 올해도 사찰들은 음성공양을 베풀며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다. 특히 올해 산사음악회는 세월호 참사 등 다사다난했던 사건들로 인해 무겁고 아픈 마음들을 힐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사음악회를 대표하는 사찰인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스님)는 오는 10월4일 오후7시 경내에서 2014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매년 멀고 비좁은 사찰 경내에 1만명이 뺄곡하게 운집해 그 장면만으로도 장관을 이루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올해 '꿈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무대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를 불러 줄 국민 디바 인순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홍경민, 힘있는 가창력의 마야, 팝페라 가수 정태옥·오윤석 등이 출연한다. 더불어 지난 1년간 무대에 서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아온 동군노소 합창단과 동군노소 밴드, 사물놀이 꼬마풍경, 어린이 밴드 등 청량사 남녀노소 신

도로 구성원 동아리들도 등장한다. 익산 심곡사는 오는 20일 오후7시 경내 정정결명장 득음기념공원에서 '2014 띠목 음악회'를 연다. '가을이 오는 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음악회는 국악을 비롯해 포크 등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음악들이 무대를 채운다.

게그맨 박범수의 사회로 남궁옥분, 김범룡, 유익종 등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 등장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화영 명창과 악신사팀풍물단도 흥겨운 우리 가락의 진수를 보여준다.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스님)는 독특한 산사음악회를 준비했다. 이를 가려 ‘템플스테이 & 명상치유’가 그것이다. 오는 10월18일 오후4시 경내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힐링의 아이콘’ 해빈스님이 법문을 하고,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의 음악회가 차례로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를 하며 마음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산사음악회로 눈길을 끈다.

▶ 2면에 계속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진재훈 전북지사장 365life@ibulgyo.com

한국불교 전법사 '불광' 40주년 조명

한국불교 전법(傳法)의 역사를 새로 쓴 월간 <불광>과 '불광법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1975년 10월 광덕스님의 원력과 정법을 갈구하는 재가불자들의 열정이 모여 종로 대각사 노천법당에서 열린 불광법회가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2일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스님)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광덕스님의 인연이 깊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기념법문을 설하고, 총무원장 지승스님과 금정총림 이사장 주지 수불스님, 대각회 이사장 도업스님 등도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창립기념법회에 이어 광덕스님이 작사한 찬불가로 유명한 보현행원송을 기념해서 10월19일 오후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보현행원송 대공연도 개최할 계획이다.

불광사는 이에 앞서 오는 27일 불광사에서 '광덕스님의 사상적 지향'과 '불광운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와 기조발제 '광덕 스님의 항의와 저항'을 기리며를 시작으로 김경희 서원대 강사와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각각 용성스님의 대각사상과 불광사상을 조망하고 소현스님의 금강경운동과 광덕스님의 반야바라밀운동을 비교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용철 중앙대 교수와 서재영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광법회의 전법역사와 전법사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선지식 초청법회를 병행하고 불광 40주년 기념대회와 불광창간 특집호 등도 발간된다.

▶관련기사 13면

다. ▶ 관련기자 13면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 2015 불교박람회

내년 3월12~15일

관련기사 12면

우리나라 불교산업과 문화, 예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5 불교박람회'가 내년 3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과 불광출판사가 주관하는 2015 불교박람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불교 최대 전시행사로서 다가간다.

‘불교,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을 슬로건으로 삼아 서울하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내년 박람회

는 올해와 같이 3개관 전관을 무대로 전통문화로서의 불교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미래 한국 불교 산업과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불교박물관의 역사는 불교산업 및 문화·예술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2013년 박물관은 170업체, 231부스 규모로 참가했고, 2014년에는 242업체, 450부스로 대폭 증가했다. 내년 박물관은 250업체, 430부스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에 따른 관람인원 년 5만 3000명, 2014년 6만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박람회에는 기존의 단순한 섹션 분류를 세분화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주거, 차와 음식, 예술과 문화상품, 수행과 사회활동, 문화서비스 등으로 나누는 한편, IT, 디자인, 패키지 등 신규산업과 업체를 대거 참여시켜 진정한 의미의 불교산업 총화의 장으로 이끌

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불교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비즈니스 공간을 신설하는 것도 내년 행사의 특징이다. 중국과 일본관을 설치해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붓다아트페스티벌(BAF)과 기획 및 특별전시도 준비돼 있어 더욱 알차고 신선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멀빈’ 이사회 “독자 승적업무 시행” 무리수

(초심호계원)

“중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직원을 제출하는 등 중단 법  
동을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  
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  
님께 대해 중헌 최고형인 ‘벌금’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조심조계  
원(위원장 선묵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  
116차 심판부를 열고 선학원 이사

장 법진스님의 징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진스님은 제115차에 이어 이날 심판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초심호계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데는 결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호계원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멀빈의 징계를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최근 최종 3차 등원요구에 불응한 법진스님에 대해 '승려법' 등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결정하고 초심호계원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진스님은 지난해 4월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지주종풍을 붕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내용의 삭제제를 골자로 하는 정

판계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도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의 중단 등록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고, 독자적인 승격 및 사찰등록업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단을 떠나 독자행보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2면에 계속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mailto:hjc@ibulgyo.com)

제4회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접수마감 9월 30일 [www.geumgang.org](http://www.geumgang.org)

거품없는  
직판여행 NO.1

**노랑풍선**

☎ 성지순례팀  
**02)2022-2540**

☎ 대표번호 **1544-2288**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충실경영 인증

KSA한국표준협회 선정  
한국소비자발행자수

KSA한국표준협회 선정  
한국품질만족지수

# 성지순례의 대종화 선언

**“4명만 되어도 100% 출발 보장” 추가비용 없음**  
성지순례의 판이 바뀐다! 노랑풍선만의 특전

- 거품없는 **착한 여행 경비** (특급호텔과 다양한 특식 제공)
- 성지순례와 더불어 유명관광지**를 함께 여행 (한회와 재미가 동시에)
- 현지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팀 운영** (상담을 통해 맞춤여행 가능)

**12월 5일 출발**  
**성지순례 open 특가!**

**부처님 8대 성지순례  
인도/네팔 11일  
2,200,000원**

- 12월 5일 출발 한정 / 전일정 노점, 노음선, 노쇼핑
- 전일정 특급 및 준특급 호텔 사용
- 성지지역 현지 요리사 동행 한식 제공

**성지순례 추천지역 01 인도/네팔**

- 동일단체 16명이상일 경우 1명 무료 제공
- 인도/네팔 비자비 포함 / 전일정 노쇼핑, 노음선
-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

**[부처님 3대성자+타지마할+이푸리]인도 6일**  
**1,750,000 ~** [매주 일/수요일 출발가능]  
▶ 10/5,12,15,19,22,26,29 11/2,5,9,12,16,19,23,26,30 12/3,7,10,14,17

**[부처님 3대성자+타지마할+자푸리]인도 8일**  
**1,950,000 ~** [매주 일/금요일 출발가능]  
▶ 10/5,12,17,19,24,26,31 11/2,7,9,14,16,21,23,28,30 12/5,12,19

**[부처님 8대성자]원백순례[인도/네팔 11일**  
**2,250,000 ~** [매주 일/금요일 출발가능]  
▶ 10/3,10,17,19,24,26,31 11/2,7,14,16,21,23,28,30 12/5,7,12,14,19

**성지순례 추천지역 02 미얀마**

- 동일단체 16명이상일 경우 1명 무료 제공
- 미얀마 국내선 3~4회 제공
- 까파파과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헤호포함]미얀마 5일**  
**1,640,000 ~** [매주 수요일 출발가능]  
▶ 10/8,15,22,29 11/5,12,19,26 12/3,10

**[만달레이]미얀마 6일**  
**1,940,000 ~** [매주 토요일 출발가능]  
▶ 10/4,11,18,25 11/1,8,15,22,29 12/6,13

**[양곤 2박, 헤호]미얀마 7일**  
**1,990,000 ~** [매주 화요일 출발가능]  
▶ 10/7,14,21,28 11/4,11,18,25 12/2,9

**성지순례 추천지역 03 중국**

- 동일단체 16명이상일 경우 1명 무료 제공
- 중국 단체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 및 준특급 호텔 사용

**[관음도량]보타산 5일**  
**1,080,000 ~** [매주 화/토요일 출발가능]  
▶ 10/4,18,21,25,28 11/1,4,8,11,15,18,22,25,29 (9/30~10/10 제외)

**[지장도량]구화산 5일**  
**1,100,000 ~** [매주 화/토요일 출발가능]  
▶ 10/4,18,21,25,28 11/1,4,8,11,15,18,22,25,29 (9/30~10/10 제외)

**[문수도량]오대산 5일**  
**1,390,000 ~** [매주 화/토요일 출발가능]  
▶ 10/4,18,21,25,28 11/1,4,8,11,15,18,22,25,29 (9/30~10/10 제외)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여행업법 변경지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준수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770호 (주)노랑풍선 ■ 보증보험 99원 72(2020.03.26~2024.03.25)/3대 2인 여행지 보험(여행사 배상 책임보험(여행업법제10조)인정) ■ 안전여행보험(서울시 중구청장 2006-3-8(구 서울 87호)) ■ 최소출발인원(만약미성년자(만18세) 동반 일방성취약자) ■ 1인 또는 2인(미성년자 포함) 이상(2인 이상) ■ 출발 72시간 마다 ■ 교통항공/기/차/철도/버스 ■ 1인/3기/4기/내배출 ■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 제57호 제58호 제59호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 제67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 제86호 제87호 제88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96호 제97호 제98호 제99호 제100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제117호 제118호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 제123호 제124호 제125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 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 제135호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 제139호 제140호 제141호 제142호 제143호 제144호 제145호 제146호 제147호 제148호 제149호 제150호 제151호 제152호 제153호 제154호 제155호 제156호 제157호 제158호 제159호 제160호 제161호 제162호 제163호 제164호 제165호 제166호 제167호 제168호 제169호 제170호 제171호 제172호 제173호 제174호 제175호 제176호 제177호 제178호 제179호 제180호 제181호 제182호 제183호 제184호 제185호 제186호 제187호 제188호 제189호 제190호 제191호 제192호 제193호 제194호 제195호 제196호 제197호 제198호 제199호 제200호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 제205호 제206호 제207호 제208호 제209호 제210호 제211호 제212호 제213호 제214호 제215호 제216호 제217호 제218호 제219호 제220호 제221호 제222호 제223호 제224호 제225호 제226호 제227호 제228호 제229호 제230호 제231호 제232호 제233호 제234호 제235호 제236호 제237호 제238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 제242호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제250호 제251호 제252호 제253호 제254호 제255호 제256호 제257호 제258호 제259호 제260호 제261호 제262호 제263호 제264호 제265호 제266호 제267호 제268호 제269호 제270호 제271호 제272호 제273호 제274호 제275호 제276호 제277호 제278호 제279호 제280호 제281호 제282호 제283호 제284호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 제291호 제292호 제293호 제294호 제295호 제296호 제297호 제298호 제299호 제300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제310호 제311호 제312호 제313호 제314호 제315호 제316호 제317호 제318호 제319호 제320호 제321호 제322호 제323호 제324호 제325호 제326호 제327호 제328호 제329호 제330호 제331호 제332호 제333호 제334호 제335호 제336호 제337호 제338호 제339호 제340호 제341호 제342호 제343호 제344호 제345호 제346호 제347호 제348호 제349호 제350호 제351호 제352호 제353호 제354호 제355호 제356호 제357호 제358호 제359호 제360호 제361호 제362호 제363호 제364호 제365호 제366호 제367호 제368호 제369호 제370호 제371호 제372호 제373호 제374호 제375호 제376호 제377호 제378호 제379호 제380호 제381호 제382호 제383호 제384호 제385호 제386호 제387호 제388호 제389호 제390호 제391호 제392호 제393호 제394호 제395호 제396호 제397호 제398호 제399호 제400호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 제404호 제405호 제406호 제407호 제408호 제409호 제410호 제411호 제412호 제413호 제414호 제415호 제416호 제417호 제418호 제419호 제420호 제421호 제